

12월 시청자위원회(2024년 12월 26일) 회의록

참석

위원측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김기응 위원, 안인수 위원,
박경숙 위원, 박소정 위원, 정상경 위원

회사측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대표이사

한 해 동안 열심히 위원회 활동 해온 것으로 생각함. 많은 의견을 주셔서 알찬 지적과 의견을 받았다고 생각함. 늘 애정과 격려가 담긴 조언으로 한 해 잘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고 생각함. 위원장 포함 위원 여러분께 감사함.

박성주 위원

학내 마약과 도박 문제 심각. 이것을 예방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김기응 위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관련 예산 줄어들거나 없어진 곳이 많아지고 있음. 참여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함.

안인수 위원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는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함. 지역, 국가적, 사회적 노력과 대응의 필요에 대해서 목소리가 필요함.

박병현 위원

트로트클라쓰 사회자, 패널 야외녹화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방송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버스러운 진행과 연출이 부담스러움.

조애숙 위원

26년 섬박람회 개최 관련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한다.

박소정 위원

미래교육 관련 하여 공교육 관성적인 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안교육에서 새로운 미래교육을 찾아보는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삶이 고통스러워 지는 것. 전남동부지역의 지역경제는 경제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지역민들이 기업을 어떻게 지켜내야하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함.

강문식 위원장

지역민이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지역소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난관극복에 대해 관심이 많음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에 대해서도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할해주길 바란다.

박경숙 위원

지역축제 낭비, 통합 알차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해주길 바란다.